

## 教授 講義評價制의 새로운 모색

李 海 成  
(牧園大·教育學)

---

학생에 의한 教授 講義評價制 실시에 대한 贊·反 兩論이 분분하다가 다시 주춤하고 있다. 강의평가제를 실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현재의 여건에서 그것을 시행한다 할 때 지금까지의 논의 속에서 빠뜨렸거나 소홀히 다루었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함으로써 교수 강의평가제 論議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다.

---

### 1

지금 교육계 일각에서는 教授 講義評價制 실시 여부에 대한 贊·反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실시하자는 쪽에서는 대학교육의 質은 教授 能力 정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교수 강의에 대한 평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교수의 研究業績 평가만 이루어지고 講義能力에 대한 평가가 폐쇄되고 있는 우리의 대학 현실은 학문연구와 학생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수 강의평가제 실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교수 강의평가제란 스승과 제자와의 人格的 만남을 전제로 한 우리의 전통적 師弟倫理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피교육자 신분의 학생이 교수의 강

의능력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교수 강의평가제에 대한 식견이 좁은 탓인 듯, 팽팽히 맞서 있는 양측의 주장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도대체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하고 현실적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또래 셋 중의 하나는 大學生일 만큼 대학 규모는 커졌으나, 그에 상응하는 교육의 質은 높아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위기적' 대학상황에서 교수 강의평가제를 꼭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분명히 일리는 있어 보인다. 또한 교수들의 다수가 강한 반발감을 갖고 있으며, 정치성마저 강한 우리 대학상황에서 학생들이 교수강의에 대해 평가하는 일이 큰 부작용 없이 제대로 실시될 리가 없다는 주장 역시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論爭文化를 살펴보면, 이러

한 찬·반 논쟁이 앞으로 계속 가열될 경우 동료 교수들 간에 인신공격까지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즉, 교수 강의평가제를 실시하자는 쪽에서는 반대하는 쪽을 교육개혁을 외면하는 보수적 성향의 나태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하며, 거꾸로 교수 강의평가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실시하자는 쪽을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학생 인기에 영합하는 철없는 이들로 몰아부칠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2

필자의 입장은 교수 강의평가제를 실시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정치문화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을 표현하는 사람은 흔히 기회주의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찬성한다”와 같은 적극적인 주장 대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표현한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분명한 까닭이 있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교육 상황을 살펴 볼 때,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異論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교수 강의평가제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실시되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교수 강의평가제 실시를 적극 주장하는 집단이 내세우는 논리나 근거를 살펴 보면, 솔직히 말해 모호하고 불확실한 내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교수 강의평가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자는 것인지, 실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충분히 검토했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 좀처럼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우선 교수 강의평가제의 실시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히 教授改善을 위한 자료수집인가, 아니면 教授人事에까지 반영하자는 것인가? 교수 강의평가의 主體는 누구인가? 교수 자신인가 학생인가, 아니면 학교 당국인가? 평가의 內容은 무엇인가? 단순한 교수능력에 국한하는가, 아니면 교수의 인격과 자질까지 포함하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하자는 것인가? 유능한 교수상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단지 학생이 설문에 반응한 수치로써 교수능력의 우열을 비교하자는 것인가? 그 설문 내용의 타당도는 누가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또 우리나라 대학교육 현실이 학문연구 여건 조성에 앞서 이처럼 교수능력의 신장부터 부르짖을 만한 상황인가? 교수능력의 신장을 강조하는 논리 속에 보이지 않는 정치성이 개재된 것은 아닌가?

교수 강의평가제에 대한 거부 이유가 옳든 그르든 간에, 많은 대학교수들이 교수 강의평가에 대해 강한 저항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평가의 對象이 되는 교수집단이 강한 저항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강의평가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게 될 경우, 한국대학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하고도 총체적인 사전 검토를 촉구하는 까닭은 한편으로는 대학 분위기가 반복과 혼란으로 황폐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실시되지만 하면 교육적으로 매우 유익할 수 있는 제도가 그냥 死藏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이다.

이 글의 목적은 교수 강의평가제에 대한 贊·反의 어느 한쪽 입장에 서서 주의주장을 하거나 구체적인 실시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서 말한 대로 교수 강의평가제를 실시한다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 즉 교수 강의평가제의 실시 목적, 실시 주체,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그밖의 몇 가지 사항들에 관련된 의문점들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하려는 데 있다. 나아가 이러한 총체적인 검토의 결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수집단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 글을 쓴다.

이 글의 전개방식은 근래 교수 강의평가제 실시를 적극 주장하는 교수집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한국대학에서 교수 강의평가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실시된다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이러한 부류의 교수집단이 나서서 실시의 명분과 근거를 주장할 것

은 분명하며, 평가문항 시안이 제작된다 해도 역시 이들 교수집단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교수 강의 평가제의 실시 목적, 실시 주체, 평가내용, 평가방법, 그리고 그밖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 3

#### 1) 實施目的

우선 교수 강의평가제의 실시 목적이 정확히 무엇이나 하는 점을 묻고 싶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가 단순히 교수 강의개선을 위한 송환(feedback)자료 수집에 있다 한다면, 다른 하나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와 마찬가지로 敎授人事에까지 그 결과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수 강의평가제의 실시 목적이 단순히 전자에 머무르느냐 혹은 후자에까지 확대되느냐 하는 것은 평가 주체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시 절차에 이르기까지 현격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교수 강의개선을 위한 송환자료 수집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부터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하자. 지금도 간접적이거나 교수의 강의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흔히 總合評價라 불리는 것처럼 학기말에 이르러 한 학기 수업을 종결하는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결과를 확인함으로써 교수 강의의 效率性을 평가할 수는 있다. 더구나 해마다 같은 교과목에 대해 비슷한 수업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학습결과와 상호비교를 통해 교수 강의의 효율성 평가는 그만큼 더 용이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결과는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敎育過程 전반에 걸쳐 검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명확한 한계를 갖는다. 즉, 수업목표의 명료성에서부터 시작해 수업내용의 적절성, 수업방법의 효율성,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거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흔히 形成評價라 불리는 방법으로 수업과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는 하나, 실제의 경우 이러한 평가 방법은 학습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정도 그리고 이에 더한 수업진도 조절 등이 고작인 때가 많다. 따라서 교수 강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학습평가 형태와는 다른, 보다 총체적이고 체계화된 평가방법이 요청된다. 이러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자주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가 학생 학습을 이끄는 교수 주체에게 송환되던 될수록 교육효과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굳이 현대 교육평가 이론을 거론하지 않아도 익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교수 강의평가제의 목적이 단순히 이러한 교수 강의개선을 위한 송환자료 수집에 있다면, 실시 여부에 대한 論爭이 지금처럼 그렇게 치열할 이유가 없다. 지금도 교수에 따라서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교수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즉, 한 학기 수업이 종료된 후 자기 강의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설문 확인, 이것을 효과적인 수업계획의 수립에 활용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 강의평가제와 비슷한 취지에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교수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탐색한 연구<sup>1)</sup>,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수업체제 및 실제의 개선 방안을 검토한 연구<sup>2)</sup>, 교수-학습 행태에 대한 학생반응과 기대를 비교 분석한 연구<sup>3)</sup> 등이 이루어진 적도 있다. 이런 연구들은 교수 각 개인에 대한 강의평가라 보기는 어려우나, 학생들이 전체 교수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교수 강의평가제와 실제 다를 바 없다.

1) 황정규 외, 『한국대학의 교수-학습방법의 실태와 문제점 탐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9.

2) 이성호, “대학교육의 수업체제 및 실제의 개선방안”, 『연세교육과학』, 제 29집, 연세대 교육대학원, 1986, pp. 21~50.

3) 이해성, “대학의 교수-학습행태에 관한 학생반응과 기대 조사연구”, 『북원대 논문집』, 제 20집 (1991).

교수 개인의 자발적 뜻에 의해 학생들로부터 자신의 강의를 평가받았든, 아니면 전체 학생들이 전체 교수의 강의를 평가한 연구 결과이든간에, 이러한 일 때문에 교수간 그리고 교수·학생 간에 반목이 생기고 심각한 부작용이 노출되었다는 사례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시사받는 중요한 점은 교수 강의평가제의 목적이 단순히 교수개선을 위한 승환자료 수집에 있다면, 교수 쪽에서 굳이 강한 저항감을 보일 필요도 없고 또 그럴 만한 명분도 내세우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각 교수들에게 교수 강의평가제가 갖는 교육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각자 자율적인 실시를 적극 권장하며, 나아가 학교당국에서 평가도구를 제작하여 일괄적으로 실시, 그 결과를 교수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경우 '교수 강의개선'이라는 차원에서의 교수 강의평가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교수 강의평가의 목적이 敎授人事資料로까지 반영되는 데 있다. 우선 교수 강의평가의 목적이 여기에까지 해당된다면, 싫으나 좋으나 교수 강의평가의 실시 주체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 교수인사 반영을 위한 심사대상인 교수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교육자인 학생이 과연 교수 강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과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수 강의평가제의 목적은 결국 敎授人事 反映에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이 '교수평가의 주체'라는 말 속에는 어떤 형태로든 교수 능력평가→인사반영→무능교수 배척이라는 논리가 저변에 깔려 있고 또 실제로 실시될 경우, 이러한 단순논리의 형태로 대학 양상이 전개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교수 강의평가제 실시를 주도하는 교수집단에서 내세우는 명분을 봐도 그렇다. 이들은 '學生教育' 역시 學問研究와 마찬가지로 배움을 수 없는 대학 본연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수

인사 평가에서 '교수 강의능력'은 배제되고 있느냐고 반문하기 일쑤이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교수 강의평가제가 실시될 경우, 그들이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교수 능력평가→인사반영→무능교수 배척이라는 대학 상황이 전개될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

교수 강의평가제 실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학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될 것을 우려, 기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한다. 사실 지금까지의 '대학교원 제임용 심사 평정표'를 보아도 분명히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이란 항목이 있다. 교수능력, 교수의 열의와 수업이행 상태, 교육효과(학생반응 등), 그리고 학습자료 활용도 등이 구체적인 평가항목이다. 따라서 교수나 학교당국이 교수 강의평가의 주체가 되어 실시할 의지만 있었다면 기존의 제도를 정상적으로 활용, 교수 강의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지 못할 것도 없었다는 주장에 일리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교수집단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수 강의평가제 실시를 주장하는 본래의 뜻은 결국 '학생의 힘'을 빌어 '無能敎授 배척'운동을 전개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교수 강의평가제가 단순히 교수개선을 위한 승환자료 수집에 있느냐, 아니면 교수인사에까지 반영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 각자의 價値判斷에 맡겨야 할 문제이겠지만, 교수 강의평가제 실시를 적극 주장하는 '본래의 뜻'이 어디까지 인지를 사전에 보다 정확히 밝혀주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 2) 實施主體

앞서 논의한 대로 교수 자신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수업과정을 개선하거나, 학교당국에서 전체적으로 교수 강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수 강의평가를 한다고 할 때 여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 듯싶다. 그러나 만일 교수 강의평가의 실시 주체가 학생일 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학생이 주체가 된 교수 강의평가의 결과로 '무능교수 배척'이라는 새로운 대학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자. 이렇게까지 대학 상황이 전개될 경우 배척 대상이 되는

교수들이 과연 학생의 평가결과를 신뢰할 것이며, 또 학교당국에 의한 교수인사 반응을 잠자코 수용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우선 교육자가 생각하는 훌륭한 교사 자질과 학생이 생각하는 훌륭한 교사 자질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긴 하나,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교장과 장학사가 생각하는 우수교사의 자질은 연구적·교육정열·협동심·지도력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학생이 생각하는 우수교사의 자질은 교육적 식견·교육기술·성격·생활태도 순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견해차이를 보인다.<sup>4)</sup> 또 대학교수 가운데 무려 94%에 이르는 교수들이 자기 자신을 유능한 교수라고 생각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sup>5)</sup> 이러한 연구결과가 사실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에 의한 교수 강의평가 결과를 교수들이 그냥 잠자코 받아들일 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학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교수 강의를 평가할 경우, 강의내용 평가에 특정 정치이념이 편파적으로 개재될 소지도 적지 않다. 아직까지 한국대학의 많은 학생회가 체제변혁을 시도하는 이른바 運動圈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감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民衆史觀에 입각하지 못한 역사학 교수, 자본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경제학 교수는 현대 한국사회 체제에 대해 비판성향이 큰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할 소지가 매우 많다. 즉, 保守 성향의 교수는 進歩 성향의 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성 있는 교수'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학생평가 결과가 敎授人事에까지 반영된다면, 교수의 학문연구의 자유는 과거 통치관료적 규제로부터 학생평가 규제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학생 평가결과에 대해 갖게 되는 또 한 가지 우려는 우리나라 大學生 文化에 대체로 '놀이문화'가 너무 만연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sup>6)</sup>, 대학생들 사이에는 이른바 '간간한 수업'과 '잔 학점'을 기피하는 성향

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교수강의에서 지적 만족감을 느끼고, 다양한 자료도 제시해 주며,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기를 바라기는 한다. 즉, 효율적인 교수 강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간간한 수업'을 기피하는 성향 역시 학생들의 기대성향 속에 매우 크게 자리잡고 있다. 즉, 정규수업 이외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물 부과, 다양한 형태의 평가 실시, 수업 이외의 별도의 학생 자율학습, 그리고 '잔 학점'을 기피하는 성향이 우리의 대학생 의식 속에 매우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학기 초가 되면 많은 학생들이 '간간한 수업'과 '잔 학점'을 피해 이리저리 수강변경을 하고 다니는 현상은 이러한 대학생 놀이문화를 반영하는 한 표징이라 볼 수 있다.

학생에 의한 교수 강의평가가 진차 무능교수나 문제교수에게 자극을 주고 교수 강의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한다. 예를 들어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를 강의', '교재 한 두 쪽 혼자서 읽고만 나가는 강의', '휴강을 다반사로 하는 강의', '교재가 없다고 접수 깎는 강의' 등에 대해서는 더없이 좋은 처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진차 무능교수와 문제교수에 더불어 '정치성향이 다른 교수'와 '학점이 잔 간간한 교수'마저 학생들로부터 배척의 대상이 되거나 앓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의 대학생 문화를 냉철히 살펴 보면, 이러한 우려는 단지 교수 강의평가제를 반대하기 위한 명분으로만 몰아부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근거를 갖는다. 대체로 간간한 교수는 학생들과 人間的으로 친분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상태에서의 교수 강의평가제는 학생들 사이의 '인기측정'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비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옥석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4) 함중규, 『학습지도』, 서울: 형성출판사, 1983, p. 365.

5) 이청찬, "대학의 교수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교육』, 1986. 5월호, pp. 99~103 참고.

6) 이해성, "앞글", pp. 31~34 참고.

### 3) 評價內容

여기에서 우선 논란이 되는 것은 교수 강의에 대한 평가내용이 단순히 敎授能力에 국한되느냐 아니던 도덕성, 인격, 자질과 같은 교수의 人性的 측면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점이다. 만일 학생에 의한 교수 강의평가가 후자에까지 해당된다면, 그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측이긴 하나, 교수 강의평가 실시를 적극 주장하는 교수집단 역시 자신의 도덕성, 인격, 자질까지 학생들에 의해 평가받게 된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까지 심정적으로나마 교수 강의평가제 실시에 동조했던 교수들마저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교수 강의평가제가 실시된다 한 때, 평가내용은 결국 '교수능력'에 국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평가내용이 '교수능력'에 국한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교수능력'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평가내용 항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점, 그리고 평가내용 항목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평가결과의 해석에 대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 합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특정교수 강의에 대해 "강의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반응을 조사했다고 하자. 그 결과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반응하였다면, 물론 이것은 그 교수의 강의 능력이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받은 셈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수가 이러한 학생 평가결과를 자신의 무능 탓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학생 평가결과를 학생들 스스로 성실히 예습해 오지 않고 공부부족을 기어올린 탓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평가결과 해석에 대해 교수·학생 간의 심각한 견해 차이가 생길 경우, 이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런지 보다 분명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과제물 부과 문제와 관련해 볼 때, 과제물의 제출횟수와 작성분량,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만족스러운 수업이 되는 것일까? 제출횟수와 작성분량이 많아도 교과서의 단순 요약이라던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단 1회 제출에 분량마저 적어도 많은 독서와 사고를 필요로 하는 독창적 보고서라면 얼마든지 교육적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유능한 교수능력에 대응하는 과제물 부과는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제출한 과제물에 교수가 논평을 한 후 돌려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잦다.<sup>7)</sup> 하지만 교수로부터 많은 과제물이 부과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학생들도 꽤 있다.<sup>8)</sup> 만일 학생들의 의식 속에 이처럼 모순된 경향이 존재한다면, 모순된 학생의식을 넘어서는 평가문항 내용을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난해한 교과목은 단순한 내용이해가 주요 수업목표일 수 있고, 종합·평가능력이 주요 수업목표인 교과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현대문학사'와 '시문학 감상' 사이에는 수업목표뿐만 아니라 강의방법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계학수업'은 강의식으로 문제 풀고 교수가 설명하는 방법이 더 좋을 수 있고, '현대교육철학사' 수업은 학생들이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식의 수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대학의 수많은 교과목들은 각기 수업목표와 수업내용이 천차만별이고, 이에 따라 효과적인 수업방법에도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유능한 교수능력'에 대한 평가내용 항목들을 분야별로 어떻게 일일이 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지지 않는다.

교수 강의평가를 주도하는 교수집단의 클 속에서도 이미 이러한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평가내용 항목을 각 학문분야별로 다양화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좀처럼 쉽지 않다는

7) 황정규 외, 『알책』, pp.71~72 참고.

8) 이해성, "알글", p.12 참고.

것을 내심 깨닫고 있기는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가절차의 표준화’라는 주장<sup>9)</sup>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사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흔히 보건의대, 관료집단의 뒷받침을 받는 ‘교육사업’은 내용의 표준화에 앞서서 절차의 표준화가 먼저 주장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평가절차의 표준화가 이미 제기된 이상 언젠가 평가내용의 표준화마저 제기되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성실하고 남득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전제한 것인지의 여부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 4) 實施方法

교수 강의평가의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계량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이증에서 질적 방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싶다. 질적 방법은 관찰자가 직접 수업시간에 참여, 교수의 수업내용과 방법을 일일이 기록·평가하는 방법이다. 실제 이런 방식 이외에 별다른 방안은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우선 궁금한 것은 누가 그러한 참여 관찰을 나서서 하려 할 것이냐는 점이다. 교수가 동료교수의 수업시간에 들어가 그 교수의 강의능력을 평가하려 할 것인가?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다. 단일 한다면 학생대표가 하려들겠지만, 학생이 자신의 수업을 참관하여 일종의 ‘점수를 매기는’ 행위를 용납할 교수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것 역시 굳이 대답할 만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교수 강의평가 방법은 설문지를 제작, 조사결과를 계량적 수치로 나타내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計量的 數値가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 즉, 교수 강의능력의 優劣이 특정 문항내용에 대해 반응한 학생 수의 많고 적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백분율과 같은 빈도로 표시될 수도 있고 일정한 척도를 통한 점수로 환산될 수도 있다. 어쨌든 교수 강의능력의 優劣은 “만족스럽다”고 반응한 학생 수의 많고 적음, 즉 일종의 多數決 原理의 형태로 평가된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대로 한국 대학생 문화 속에 ‘깁깁한 수업’과 ‘깁 학점’을 기피하는 성향이 만연되어 있다고 한다면, 계량적 수치를 통한 교수 강의능력 우열의 평가는 사뭇 위태로운 것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평가결과가 액면 그대로 敎授人輩에까지 직접 반영된다면 우리의 교수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 여지마지 있다. 왜 그런가?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sup>10)</sup>,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교수의 수업행태에 대해 학생들이 반응한 실시정도와 바라는 바를 뜻하는 기대정도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떤 교수행태에 대해 학생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불만을 갖는 정도만큼 그러한 교수행태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자. “한 학기 16주 정규수업이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하는 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반응한 실시정도 순위는 전체 22개 문항 중 2위로서, “대체로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갖는 기대 정도 순위는 놀랍게도 아주 낮은 16위 수준이다.

또한 강의 일변도 수업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불만을 보이면서도 수업 과정중에 적극 참여하거나 별도의 자율학습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느끼는 모순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쉽게 말해, 교수의 ‘소홀한 강의’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감을 보이면서도 ‘깁깁한 수업’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갖지 않는 모순된 가치성향이 대학생 의식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교수 강의능력의 우열이 학생이 반응한 ‘계량적 수치’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된다면, 이러한 평가결과 속에 교육적으로 건전한 소수의 학생의사를 반영시킬 방법은 찾기 힘들다. 더구나 전체 대학생 의식 속에 내재된 모순된 가치성향을 배제시킬 수 있는 마땅한 방안도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것은 설문지의 타당

9) 이성호, “교수 업적평가의 본질과 방법”, 『대학교육』, 1991.9월호, p.45.

10) 이해성, “앞글”, pp.8~9 참고.

도와 신뢰도에 관한 문제이다. 설문조사를 한다 할 때, 설문지를 학생집단에게 반복 실시해도 일관된 결과가 나오던 그 설문지의 신뢰도는 높은 것이다. 학생집단의 선정, 반복 실시되는 시간상의 차이, 또 검사분위기 등단 사전에 잘 조정하면 설문지의 신뢰도는 설문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쉽게 높일 수 있다. 기초적인 측정이론만 알고 있어도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설문지의 타당도이다. 다 아는 얘기이지만, 설문지의 타당도는 설문문항 내용이 '진짜 유능한 교수능력'을 적절히 평가하게끔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으로 판정된다. 흔히 문항 내용의 적절성·대표성으로 지칭되는 이러한 타당도를 검토하거나 높이는 일은 생각만큼 그리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짜 유능한 교수능력'의 값이 우선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흔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평가의 준거, 즉 '진짜 유능한 교수능력'의 값이 사전에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교수의 강의가 뛰어난 것인지, 어떤 교수방법이 효율적인지 하는 가치판단은 할 때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진짜 유능한 교수능력'의 값이 먼저 세워지고 나면, 이에 더해 구체적인 평가 항목들이 선정되게 된다. 유능한 교수능력 상에 부합하도록 포괄적이고 대표성 있는 문항들이 골고루 포함되게끔 설문지가 제작된다. 측정이론상 이러한 설문지 제작 절차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중요하고도 어려운 점은 앞서 말한 대로 평가준거가 되는 '진짜 유능한 교수능력' 값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또 이에 대한 교수간, 교수·학생 간에 과연 합의창출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도 산업사회·정보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교수·학습 행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한국 대학생 문화와 교수·학습 실태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도 요청되며, 흔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수의 강의 일변도 수업과 학생의 수동적인

학습태도가 쉽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평가문항 내용에 대해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수집단의 승인을 먼저 구하지 못한다면, 교수 강의평가제가 한국대학에 制度化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 5) 研究機能과 教育機能

마지막으로 대학 본연의 기능인 學問研究와 學生教育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교수 강의평가제 실시를 적극 주장하는 교수집단이 教授能力的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논리는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대학교육의 質은 교수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 교수능력은 '학문연구'와는 다른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교수들의 학문연구 업적이 학생교육을 위한 교수능력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그 하나 하나가 일리있고 또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들 집단이 내세우는 그 다음의 논리를 살펴보면, 솔직히 당혹스러운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이들 집단은 한국대학의 풍토가 지나치게 학문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그 한 예로, 신규 교수 임용이나 승진 및 재임용 등이 한결같이 학문연구를 표징하는 論文實績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교육을 표징하는 講義能力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더구나 "불행히도 가르치는 일의 희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sup>11)</sup>는 표현마저 서슴치 않는다. 물론 '제로섬(zero sum)'의 원리로 이해하던 옳은 주장일 수 있으나 결코 그런 뜻에서 한 말은 아닐게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이 학문연구 중심적이기 때문에 학생교육이 희생되고 있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연구시설이 극히 미비한 대학이 전국에 부지기수고, 도서관 설비를 제대로 갖춘 대학도 그리 많지 않다. 봉급 털어 자기연구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연구비 수혜도 극히 빈약하고, 교수 1

11) 이성호, "앞글", 1986, p.23 참고.



인당 수업시간 수나 학생 수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편이다. 산업체에서 마저 대학의 연구능력을 시원치 않게 보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지방대학의 경우, 제자 2명 취업시키기 위해 구걸하다시피 전국 각지를 누비는 교수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악화된 대학 연구여건을 반영하듯, 우리나라 대학교수 1인당 평균 논문편수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아주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수집단은 학생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까닭이 마치 '학문연구 중심'의 왜곡된 대학 풍토 탓인 양한다. '가르치는 일의 희생'은 '학문연구 중심' 탓이 아니라 오히려 '학문연구 부족' 탓으로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보직참여, 기업자문, 각종 위원회활동, 정치·사회 활동 등과 같은 학문과 교육 외적인 일들, 좋게 말해 社會奉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앞서 말한 학문연구와 학생교육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 학문연구 업적이 뛰어나면서도 실제 교수능력이 뒤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아마 있다면 그것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설사 있다 해도 큰 문제가 될 것같지도 않다. 흔히 大家라고 불리우는 교수의 학문적 권위로부터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느끼며 배우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교수의 학문연구 업적이 뒤떨어지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연구업적이 뒤떨어지고 교수능력도 변변치 못한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연구업적은 뒤떨어지면서 교수능력만 뛰어난 것도 최소한 대학사회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교수란 무엇보다도 새로운 지식 생성을 생명으로 하는 創造的 專門職이기 때문이다. 오직 교수능력만 뛰어난 경우, 오히려 대학사회에서는 '언변'만 앞선 재주꾼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일마든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다소 다른 길로 간 것같지만 뜻하는 바는 간단하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敎授能力的 重要性을 무시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연구업적이 뛰어나도 교수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최소한 '효과적인 학생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주장에도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대학의 교육여건을 살펴 볼 때, 한국대학이 학문연구 중심적이기 때문에 학생교육이 희생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만큼은 앞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 4

결론을 맺기에 앞서,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것이 있다. 교수 강의평가제가 갖는 '잠재된 정치성'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교수 강의평가제 실시 논리에 내재된 문제점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교육계 일각에서 교수 강의평가제 실시를 적극 주장하게 된 것은 한국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뜻으로 알고 있다. 특히 대학 졸업정원제가 실시된 '80년대 이후 대학생 수는 급속히 증가한 반면, 그에 상응하는 대학교육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우려의 소리가 크곤 했다. 혹자는 이런 상황을 한국 대학교육이 처한 危機的 狀況으로까지 표현하곤 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 대학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본래 급속한 학생 수 증가에 미치지 못했던 교육제정과 연구·강의 시설의 부족, 충분치 못한 교원확보 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기적 상황'으로까지 지적되는 한국 대학교육의 質 문제는 근본적으로 研究·敎育與件 改善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대학들 가운데 그만한 敎育投資를 감당할 수 있는 대학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한다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도 별로 기대할 만한 상황이 못되고 있다. 결국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세롭게 제시된 해결방향이 바로 敎授機能의 強化였고, 그 구체적 대안이 다름아닌 교수 강의평가제가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교수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문제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과 같이 교수 강의평가제에 대한 논란이 밀도

끝도 없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한국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 방안이 마치 교수 강의 평가제 실시 여부에 달려 있는 듯한 왜곡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것은 한국대학을 위해 사뭇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韓國 教育史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적지 않게 드러나온 한다. 自慰든 아니든 간에 이른바 '관변학자'라 불리는 교수집단에 의해 그러한 오도된 인식이 꽤 많이 만들어져 왔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實驗大學이라는 이름의 대학교육 개혁정책이 바로 그러한 범주에 속했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교수 강의평가제 실시를 적극 주장할 때는 교육재정과 투자의 확대, 연구·교육 여건의 개선, 우수한 교원 확보 등이 한국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임을 누차 강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 교수집단 역시 교육투자 확충에 대한 국가적 무관심을 정당화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훗날 '관변학자'라는 역사적 汚名을 벗기 힘들지도 모른다.

## 5

이 글의 목적은 교수 강의평가제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의 한쪽 입장에서 서서 주의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교수 강의평가제를 실시한다 할 때 평가목적, 주체, 내용, 방법, 그리고 몇 가지 부수적 사항 등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려는 데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던 평가의 목적이 단순한 교수 강의개선 자료수집에 있는가, 아니면 敎授人 事에까지 반영하자는 것인가? 교수가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교수 강의평가를 학생들 손에 맡기겠다는 것인가? 평가 준거로서의 유능한 敎授像은 어떤 것이며, 평가 결과에 대한 교수·학생 간의 合意 창출은 가능한가? 설문조사를 통한 제량적 평가방법이 갖는 문제는 무엇이며, 설문지의 타당도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학문연구를 위한 敎育與件 改善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무관심한가?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서 교수 강의평가제에 대해 총체적이고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촉구하였다.

사실 많은 대학교수들이 교수 강의평가제 실시에 대해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 자체가 역설적으로 교수 강의평가제가 갖는 좋은 藥効를 입증해 주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학생들의 '공부'와 마찬가지로 교수들의 '연구'나 '강의준비'도 어느 정도 외적 자극에 의한 심적 부담을 느껴야 제대로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 곳곳에는 改革과 開放의 열기가 가득하고, 고도 산업사회니 정보사회니 해서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적극 시도되고 있는 이때, 대학만 언제나 과거의 타성에 안주할 수는 없다.

교수의 權威를 말할 때 흔히 '君師父一體'를 언급하곤 하나, 한글세대인 요즘 대학생들은 그 말뜻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거 처럼 단지 敎授이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때는 이미 다 지나간 듯하다. 교수의 권위는 '학문연구'와 '교수능력'에 의해 인정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좋으나 싫으나 오늘의 한국대학의 실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學問研究를 위한 여건 조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敎授能力 伸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학생들에 의한 敎權 挑戰이라기보다는 학생들로부터의 敎權 守衛를 위한 출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보다 옳은 태도라 본다.

교수 강의평가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사뭇 비판적인 시각에서 問題提起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교수 강의평가제 실시 자체를 否定하고자 하는 뜻은 분명 아니다. 또 아무리 좋은 새로운 제도라도 처음 도입될 때는 어느 정도 副作用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안다. 단, 교수 강의평가제와 관련된 총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지도 않고, 적절하고 현실적인 代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全面實施를 해 봐야 극심한 후유증만 남긴 채 그대로 사장되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밝히고 싶을 따름이다. 그렇게 된다면 서둘러 실시하지 아니한단 못한 꼴이 된다.

고도 산업·정보사회에서 요청되는 새로운 교수·학습 형태는 무엇인지, 한국대학의 연구·교육 여건은 어떠한지, 한국 대학생 문화의 특성

은 무엇인지, 교수와 학생 모두 새로운 교수·학습 행태에 대한 適應의 여지는 어느 정도인지 하는 문제에 대한 구멍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교수 강의평가제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 의해, 어떤 내용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평가대상인 교수집단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렇지 않고 사회문화 풍토와 연구·교육 여건이 사뭇 다른 몇몇 미국대학 사례만을 들어 교

수 강의평가제의 妥當性을 주장할 경우, 이러한 沒歷史의 태도가 한국 대학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간 우리의 教育史를 살펴보면, 教育改革은 일부 성급한 주도적 교수집단에 의해 역사적 실험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질감케 하는 教訓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한국대학 현실에 적합한 교수 강의평가제 代案을 마련하는 것임을 거듭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

### <投稿案內>

『大學教育』 제58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研究·教授 및 社會奉仕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教育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方案에 관한 논의, 외국에서의 연구 동향 소개, 본문에 게재된 글에 대한 反論 원고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① 論 壇	② 教授談論	③ 學科別 教育課題
-------	--------	------------
2. 枚 數—200자 원고지 35매, 45매 또는 55매(②는 20매 또는 25매)
3. 期 限—1992년 5월 20일
4. 稿 料—매당 3,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教育協議會(150-742)  
(TEL 783-3891, 780-7942, FAX 780-8311)
6. 附 記
  -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하며,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